

# “임실역 KTX 정차, 균형발전 핵심” 가정의학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임실군, '5극+3특 균형발전 시대와 호남권 철도전략 전략' 학술세미나 열려

임실역KTX 정차가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 3특 전략의 호남권 철도 발전과 관련한 핵심연결축이 될 중심으로 떠올랐다.

군은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화홀에서 개최된 '5극+3특 균형발전 시대와 호남권 철도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상반기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주최·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호남권 철도 인프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상영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 민 군수의 환영사, 이 준 한국철도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화제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거점 중심의 초광역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망 확충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서남권 철도망 구축전략'과 '임실역 KTX 정차, 천만 관광 임실의 새로운 시작'이 주제발표로 다뤄졌다.

특히 임실이 전북 내륙과 남원, 순창, 진안 등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교통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임실군은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화홀에서 개최된 '5극+3특 균형발전 시대와 호남권 철도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상반기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실군은 '임실치즈' 브랜드와 치즈테마파크, 육정호 붕어섬, 사계절 축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난해 918만명이 방문한 관광거점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KTX정차는 단순 교통편의 개선을 넘어 관광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체류형 관광 확대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축진제로 평가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학·연구기관·철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거점역 기능 강화방안과 철도 접근성 개선이 지역 산업·관광·정주여건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KTX정차 확대가 대도시 중심 교통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북 내륙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역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관광·산업·정주 정책과 연계한 종합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환영사를 통하여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의 촘촘한 연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임실역 KTX 정차는 단순한 역 기능 확대가 아니라, 전북 내륙권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회와 전문가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논의를 더욱 체계화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순창군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으로 의료공백 해결

순창군보건의료원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새롭게 채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보건의료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했으며, 12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의 채용은 필수 진료과목의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장거리 진료를 받아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채용된 전문의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신규 채용으로 그동안 전문 진료를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순창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84대 보급 추진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 60대 △전기화물 24대 총 84대로 예산은 12억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189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1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추가 지원금은 해당 시 중복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이 혜택은 폐차 또는 판매 대상 차량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하며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이하 및 청년층에 최초 구매자에게는 즉시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 택시 운전자에게는 최대 2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절차는 구매 예정자가 전기자동차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판매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등록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 남원시보건의소, 초·중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

남원시보건의소는 초·중학교 입학 전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 예방접종(초등 4종, 중등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으로 총 4종이며, 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으로는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로 총 3종이다. 이에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620-7337)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이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 최선

임실군은 겨울철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4월 까지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밀 예찰 및 취약 제거 등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 실천 사항(농작업 전후 장비 소독, 방제약제 살포, 의심 취약 제거 등)을 홍보하고 이날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제 약제 선정 후, 3차 방제 약제를 공급하여 과수화상병의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들 성수면에 성금 기탁

임실치즈테마파크(임장 흥성만) 직원 일동은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면사무소를 방문해 현금 75만원을 기탁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2021년부터 직원들이 손수 모은 성금을 매년 명절에 기탁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어김 없이 성금을 모아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를 통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보건의소, 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 임상실습 운영

남원시보건의소는 2025년 7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 12일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은 이번 실습에서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노인·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병원 중심의 진료 환경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의 운영 구조와 공공의료의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AI 로봇 개 시범 도입

### '피지컬 AI' 기술 실증 초점 시연회 가져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개를 공공분야에 도입하며 미래형 스마트 행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AI 로봇 개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육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시연회는 단순 기술 전시를 넘어, AI 로봇개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이동하는 '피지컬 AI' 기술 실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는 물론, 공공시설 안내, 순찰 및 안전

점검, 미술관 해설 시나리오 등을 구현하며 향후 AI 기반 행정 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시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활용 로드맵을 수립했다. 1단계로 자율주행 로봇 개를 SW미래채움센터에 배치해 소프트웨어 교육 보조교구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인식·판단·이동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로봇 개를 시 청사 내 상시 순찰과 반복 업무에 시범 투입해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원 안내, 전시관 해설 등 대인



서비스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로봇 개 도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반복적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행정 전반에 단계적으로 접목해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